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도 백신 접종할 곳이 없어요

아시아 지역 환자 급증 불안 고조
접종비 15만원 웃돌게 비싸고
일반인 접종 병원 광주·전남 3곳뿐
백신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다음달 중국 상하이로 여행을 가는 박해진(여·31·순천시)씨는 여행을 앞두고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려다가 허탕을 쳤다. 순천에는 백신 접종을 할 병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여 걱정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며 “비용도 15만원이나 되는데 광양이나 여수까지 차를 끌고 가야 해 그냥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최성훈(34·광주시)씨는 자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데다, 정부도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이지만 지나치게 비싼 접종비가 부담되는 탓이다.

최씨는 “이번엔 두 아이에게 접종을 하는데 15만원씩 30만원이 든다”며 “감기 수준 정도라면 차라리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평소 조심하는 게 나을 것도 같다”고 했다.

최근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국내 유입을 걱정하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광주·전남에는 백신 예방접종을 맞을 병원이 거의 없는데다, 접종비가 15만원을 웃돌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다. 중국 환자는 3월 5만6286명에서 4월 16만8507명, 5월 44만662명 등으로 늘었고, 태국도 5월 한 달 동안에만 22만여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세를 보이며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질병관리청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25년도 20주차(5월 11일~17일) 8.6%, 21주차(18~24일) 8.8%, 22주차(25~31일) 7.7%, 23주차(6월 1~7일) 7.9%이다.

입원 환자는 20주차 100명, 21주차 99명, 22주차 105명, 23주차 95명으로 매주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시민들은 불안감에도 예방접종을 받을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접종분은 광주·전남 지역을 통틀어 단 3곳에서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동구보건소에서 담당직원이 16일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보건소 중심으로 개편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이자 백신 유통사(HK이노엔)에서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유료 접종 병원 입고 현황을 보면 현재 광주에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을 입고한 병원은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김의원 1곳뿐이다.

전남은 광양시 광양사랑병원, 여수시 탐내과가 정의학과 등 2곳만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20개 시·군 지역민들은 몇 시간 걸려 광주나 광양, 여수로 ‘원정 접종’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다.

각 지역 보건소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한해서만 백신을 접종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접종비도 비싸다. 각 병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로 15만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인 한 병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었고, 휴가나 사업차 해외 나가려는 사람들의 백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하루 10여건 정도 접종하고 있는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백신 자체의 가격이 상당하다보니 전화 상담만 하고 접종하러 오지 않는 이들도 대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30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내란수괴 윤석열 활보 열 받는데 김용현까지 보석...이게 법이냐”

재판부 결정에 비난 봇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지극연 재판부가 내란 종사자들을 엄단하기는커녕 용서해주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극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할 것,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내걸었다. 석방 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을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부가 윤석열을 지난 3월 구속취소로 풀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전 장관까지 풀어주는 등 구속 수사를 받던 내란 종사자들을 줄줄이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른 내란 종사자들까지 구속 만료로 풀려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내란 주요 종사자인 게 너무나도 명백한데 보석으로 허가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 감정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는 모습이다”며 “김용현 측에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보석 결정을 거부한 것도 적반하장격이다. 새로운 정부가 내란 청산에 대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피고인도 구속 취소돼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데다 김용현까지 내란 중대 범죄자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보석으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사상의 하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또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날 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과 달리 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尹,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서면조사 역제안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오는 19일 출석을 요구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오는 17일 경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 소환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게 윤 피고인 측 입장이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피고인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윤 피고인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연합뉴스

김건희 지병 이유로 입원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피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16일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평소 앓던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병원 진

료를 받았으며,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집거를 이어갔다.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도 입원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